남편의 재기 밑천이 된 비스토 당첨!

「바가지를 긁으면 무슨 소용있겠어요. 남편도 하느라고 했는데 운이 안 따라주고 사람이 워낙 좋다보니 사기도 많이 당하고…」

신혼시절부터 둘이서 이 악 물고 돈 모아 집도 사고 어느 정도 살만할 때 남편 공장이 부도를 맞았고 또 한번의 재기를 통해 일어섰을 때는 절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부인인 김춘희(41)씨는 사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남한테 해를 끼치며 살아온 것도 아니고 단지 한 일이라곤 잘 살아보려고 시장으로, 식당으로 닥치는 대로 일해서 돈 번 것밖에 없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한테 이런 일만 생기니 모두가 원망스럽고 삶의 의욕 또한 떨어졌다. 남편은 미안해서 김씨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밖으로만 돌고 부부사이도 안좋아졌다. 김씨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 번 둘이 힘 모아 살아보던가 아니면 이혼을 하던가.

『이혼은 남 일이라고만 여겼지, 제 자신의 일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도 어렵고 안되니까 이혼이란 낱말이 머리속에 떠오르더라구요』. 하지만 김씨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남편의 마음을 다잡아 같이 살 궁리를 했다. 남편 또한 부인의 말에 따라 여기저기 막일도 알아보고 재기의 몸짓을 보였다. 김씨도 다시 식당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 궂은 일이라면 자신있는 김씨였다.

그런 김씨 부부에게는 하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씨가 산 「자치복권」이 비스토에 당첨된 것이다. 김씨는 생각했다. 차에 당첨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운전을 잘 하는 남편이 차를 갖고 어떤일을 시작하면 이제는 망하지 않을거란 하늘의 계시가 아닐까라는.

김씨는 비스토를 팔고 트럭을 한 대 뽑았다. 남편에게 주기 위해서다. 지금 남편은 트럭으로 가구배달을 하고 있다.

「신혼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돈은 비록 없지만 부부사이도 그 어느때 보다도 달콤하구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요.」라고 하는 김씨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